

## News

### 세차례 연속 금리 인상? 속도 조절? ... 고심 깊은 한은

국민일보

한국은행, 오는 24일 금통위에서 3차례 연속 기준금리 올릴 수 있을지 관심 집중... 현 시점까지는 동결 관측이 우세... 지난 11월과 1월에 연속 인상에 세 번 연속은 부담 대선과 더불어 다음달 말 이주열 한은 총재 임기만료에 따른 교체로 4월 이후 인상 가능성이 커... 반면 글로벌 병목현상 지속으로 인플레이 압력 구조적 고착 우려에 따른 인상 주장도

### 당국 '금융사 총당금 추가 적립' 시그널... 주주들 "배당 줄어들면 어쩌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금융지주들이 작년 대손충당금을 평균 20% 줄이고도 총당금 적립률이 높아지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고민 중... 적립률 상승 원인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대책 시행으로 부실 위험 자체가 줄었기 때문... 올해는 기업 대출비중 증가 및 가계대출 제한적으로 보수적일 가능성

### 청년희망적금 사전조회 200만건 육박... 조기소진 가능성도

연합뉴스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신청 건수는 총 150만건 넘어선 것으로 파악... 6개 은행까지 포함할 시 총 조회 건수는 200만건 육박 예정... 중시와 가상화폐 부진에 높은 금리 매력도 부각이 주요... 올해 배경된 사업 예산은 456억원... 모집 첫 주부터 한도 소진 가능성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토스뱅크, 입사 1주년 임직원 17명에 34만주 스톡옵션 부여

머니S

토스뱅크, 입사 1주년 사내 임직원 대상으로 스톡옵션 부여... 17명에게 총 34만주 부여하기로 결정... 액면가 기준 주당 5,000원... 대상 임직원은 부여일 2년 뒤인 2024년 2월 28일부터 5년간 행사 가능... 작년에서는 7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임직원 60명에게 부여한 바 있음

### 주요 손보사 자동차보험 인하 가닥... 1.2% 인하할 듯

조선비즈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시작으로 주요 손보사들 보험료 내릴 전망... 지난 2018년 이후 약 4년 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 내로 발표될 예정...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은 자동차보험료 인하 검토 중... 자동차손해율 개선과 실적 호조에 따른 조치 때문... 금융당국은 2%대 인하를 권고 중

###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 간간해진다

동아일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 착수... 과잉진료 막고 보험금 누수 줄이기 위함... 주요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 간간해질 예정... 이르면 3월 중 강화된 기준 확정 예상... 특히 백내장 수술을 유념하고 있어... 연간 기준으로 1조 1,528억원 수준에 이르기 때문

### 개미 달래기냐, MSCI 편입이나... 딜레마 빠진 '공매도 전면 재개'

한국일보

정부, 당초 밝힌 상반기 내 공매도 전면 재개 방침을 놓고 고민 중... 주가 하락 등 공매도 정상화를 뒤집을 요인이 있어 추가적인 언급 자제 분위기... '가급적 정상화'란 표현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못 박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 의식한 것으로 풀이... 오는 6월까지 결론 내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

### ELS 신규 발행 2조원대로 뚫... 쌓여가는 미상환잔고에 신규 유입 줄어

아주경제

금융투자협회와 예약결제원에 따르면, ELS 발행 규모는 작년 2021년 9월 이후 매월 감소 중... 조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후속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 증권사들, 기존보다 수익률을 높여 투자자들 끌어들이는 상황... 현재 4300선 위협받고 있어 조기 상환 성공 불확실한 상황... 신규 발행 시장도 더 위축될 가능성 존재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